

이웃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한국프라임제약, 복지단체에 건강기능식품 전달

한국프라임제약(회장 김대익)은 지난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광주 영광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했다. <사진> 또 계산원에는 현금 1000만 원도 함께 기부했다. 한국프라임제약(주) 양승철 전무는 "물가상승 등

의 부담과 경기침체로 인해 더 많은 곳에 기부활동을 못한 아쉬움도 많지만 사회적 기업 책임활동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매년 명절마다 기부활동을 해오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소화자매원 등에 후원금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화자매원, 희망의집, 화순자애원,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여성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후원금으로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전달식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장정희 회장과 하

재욱 제1회회장, 김정희 제1회원이사가 함께했다. 장정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도의회, 광양 지역 요양병원 찾아 위문품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11일 광양시 소재 봉강노인요양병원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도의회는 이날 봉강노인요양병원을 비롯, 마동주간보호센터, 광양시각장애인센터, 광양칠성노인요양원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매년 설·추석 등 명절 때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KT 전남전북광역본부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와 KT 노동조합호남지방본부(위원장 이남권)가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사진> KT 노사는 어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

송편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배식을 돕는 등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 200가구에 전달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지방조달청, 장애인복지시설에 물품 전달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종열)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엠마우스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지방조달청은 최근 열린 '2024년 전남권 여성기업-공공기관 구매상담회'에 참가해 여성기업

대상으로 공공조달 방법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기업들을 현장 방문하는 등 지역 밀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이웃 사랑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전통시장서 장보기 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추석을 맞아 양동시장에서 따뜻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 돌봄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보기 후원금 1000만원은 광주시도시공사(4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200만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200만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10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100만원)가 기탁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4	달뜨기	15:39
해질름	18:42	달지기	00:04

더위 먹지 말고 아프지 마세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광주	소나기	24/34	보성	소나기	23/33
목포	맑음	26/33	순천	소나기	25/33
여수	맑음	26/33	영광	맑음	24/33
나주	맑음	24/34	진도	맑음	24/33
완도	구름많음	25/34	전주	구름많음	25/33
구례	소나기	24/34	군산	구름많음	24/34
강진	소나기	25/34	남원	구름많음	24/33
해남	소나기	24/34	흑산도	맑음	25/34
장성	소나기	23/33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파고 (m)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0.5~2.0	0.5~2.0
	면바다(동)	0.5~1.5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여수	목포	여수
간조	03:07	-:-	08:37	18:10
만조	14:16	-:-	22:02	-:-

◇ 생활지수

미세먼지	좋음
------	----

◇ 주간 날씨

14(토)	15(일)	16(월)
☁	☁	☁
25/34	25/34	26/33
17(화)	18(수)	19(목)
☁	☁	☁
25/33	25/33	24/31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3일(음 8월 11일 庚辰)

☎ 010-9790-8237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현금,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36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48년생 대단하지는 않으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60년생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가장 현실적이어야만 후회하지 않게 된다. 84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96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59

37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9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61년생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73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85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97년생 예정대로만 진행시키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0, 53

38년생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50년생 생소하거나 허황한 것일랑 접어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62년생 변수가 보이니 충분히 알고 개입해야 한다. 74년생 실마리가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면모로다. 86년생 굶은 것은 퍼자. 98년생 현명한 결단이 위기를 극복케 한다. 행운의 숫자 : 85, 92

39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51년생 현대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63년생 중차대한 일이라도 잘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75년생 오해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87년생 과거의 관행과 전통을 따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99년생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0, 90

40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되어질 수다. 52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타개할 수도 있다. 64년생 상대는 몇 수 앞서가고 있는 고수임을 알라. 76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생산적이다. 88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00년생 폭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걸성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43, 88

41년생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53년생 직접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65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라. 77년생 근본에 충실했을 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89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력해야 할 때다. 01년생 믿었던 바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7, 52

42년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54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제의가 들어올 수 있다. 66년생 모여서 의논해본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78년생 변수가 많으니 만큼 판세를 헤아리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90년생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02년생 주권을 갖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22, 74

43년생 접매한 관심사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55년생 어지간하면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낫다. 67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 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79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91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03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되리라. 행운의 숫자 : 40, 96

44년생 삼사일연한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으니라. 68년생 겪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다. 80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92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04년생 길사는 별로 없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3, 84

45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주대를 갖고 밀어붙여라. 57년생 돈이 들어오더라도 쓸 곳이 바로 생긴다. 69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81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룰 것이다. 93년생 용도에 부합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05년생 특별히 쟁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54

46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니라. 58년생 불균형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보일 것이니 속히 바로 잡아라. 70년생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82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94년생 심기가 불편하리라. 06년생 안타까움을 더하는 원인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89

35년생 원래부터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니라. 47년생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대지사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59년생 마음의 문을 연 만큼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리라. 71년생 잘 살려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83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95년생 실용적인 제의를 하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 57